

머무름 없어 유유자적... 無常 일깨워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구름



구름처럼 물처럼, 이곳 저곳을 만행하며 수도하기에 스님들을 '운수납자'라 지칭한다. (사진=안정현)

저 우뚝 솟은 푸른 산이 떠가는 흰구름을 바라보며 웃고 있네 바람 따라 이곳 저곳을 정처 없이 떠돌지만 마음은 언제나 여기 푸른 산에 있네.

호를 '백운(白雲)'으로 삼은 고려 경한스님의 선시 '흰구름'이다.

선사들의 선시에는 '구름'이 자주 등장 한다. 구름이 나타내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떠돌아 다니는 자재함을 잘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며 수도하는 스님을 '운수납자(雲水納子)'라 지칭하고 있다. 이런 불교적 상징성 때문인지 구름은 선사들의 법명 또는 호와 고운사(孤雲寺) 운문사(雲門寺) 등 사찰의 이름에도 많이 등장한다.

구름은 비, 바람과 더불어 우주종조와 자연의 순조로운 조화를 상징하기도 하며 신화나 서사시에서는 천상의 권능, 하늘과 땅사이를 왕래할 수 있게 하는 탈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구름에 강요함, 허무, 초월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한시나 시조를 통해 노래했다.

물, 바람과 마찬가지로 '구름'은 형체가 없고 빛깔이 희며,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든지 떠돌아 다니기 때문에 세속을 떠난 초월의 경지를 나타내기도 하며 부상, 무심, 무아, 탈속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구름은 바람과 함께 인생의 풍랑을 상징하기도 한다. 특히 오색 구름은 상서로움을, 먹구름은 흉년의 징조나 인성이 있어 재난이 일어남을 나타내며 청운(靑雲)은 입신출세와 높은 꿈을 나타내고 있다.

백운(白雲)

이규보는 '백운거사 어록'에서 구름의 구속의

지 않는 모습과 축람할 수 없음, 거동이 굳다짐과 지사의 취미 갑을을 언급한 뒤 "구름을 사랑해 그의 덕을 배워가면, 첫째로 만물에 해택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여 구름의 백(白)을 지키며, 구름의 상(常)에 처하여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구름이 나를 닮았는지 내가 구름을 닮았는지 모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보우스님과 해원스님도 구름을 소재로 노래했다.

구름은 산 위에 있고 산속의 물은 흘러 흘러 가고 있네 내 여기 살려 험하니 친구들은 날 위해 산 한자락을 넘어네 저 친구들에게 내 마음 속 다 막혀 있었네 어떤 때는 비를 내려 오네 머무지 않네 또는 맑은 바람을 타고 온 누나 두루 돌아다니네

고려 시대의 선승 태고 보우스님이 산 위에 떠 있는 구름을 읊으며 시로 읊은 '운산음(雲山吟)'이란 선시다. 유유자적하고 정처없이 떠돌아 다

운수납자 비유... 절이름·법명 많아

구름문양 내세 극락왕생 뜻 담겨 白雲은 가벼운 마음과 무아 상징

나는 구름을 본받아 절립없이 살리고 권하고 있다. 또 큰 강물처럼 흐르는 구름의 시정은 보석처럼 영롱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윤희는 친구를 떠올려 이 세상에 왔노라 마음이 명월 떠나 어디에 가노나 오고 가는 것, 오직 이 구름하고 닮아 구름 흩어지면 저 닦일 누리에 차니

조선초 선승 천경해안(1691~1770)스님이 노래



정지상감은 학문매방(국보 제68호)에 나타나 있는 점운.

법주사 대웅전 수미단의 구름무늬.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상서로운 오색구름을 타고 지혜로운 입급 아래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하강하고 있다. 지수박물관 소장 김보령중 부분(18세기 중엽 작).



구름다리를 통해 불국도로 들어감을 상징적으로 조영한 경주 불국사 청운(靑雲)·백운(白雲)교.

문에 연결된다. 이 두다리는 중앙에 긴 돌이 설치되어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아래의 계단이 청운교이고 위의 계단이 백운교에 해당된다.

구운몽(九雲夢)

성진과 여덟 선녀의 일화가 담겨있는 고전소설 '구운몽'은 인생의 부귀공명이 일장춘몽이란 교훈과 함께 불교적 깨달음의 경지인 '공(空)' 사상을 소설화 했다.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 성진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뜻을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꿈속에서 실현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 꿈속의 일이 허망한 일임을 깨닫는다.

작가 김만중은 소설 '구운몽'에서 인간의 사심(私心)과 대비되는 초월적 원리로서의 무상함과 무아심을 표상하는 구름의 양면적인 속성을 동시에 상징화 했다. 인간 만사로 비유된 구름의 의미는 성진 쪽에서는 무상함으로, 양소유 쪽에서는 입신 출세를 뜻하는 것으로 함께 사용되었다.

구름문양

구름은 부동(浮動)하는 기체로 내재적 기세와 강약 허실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환상적 경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옛 사람들은 현재에 머물렀던 사후에도 상불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런 구름을 형상화한 문양들이 고분 벽화를 비롯해서 종묘의 계단 장식 등 여러 곳에 보이고 있다.

△괴운문(怪雲紋): 고구려 고분 벽화중에는 추상화한 운문이 보이는데 갑신총, 각지총, 무용총, 천왕 지신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름 무늬는 신라 칠기 관에서도 보인다.

△당초 운문(唐草雲紋): 고구려 고분 벽화 중에는 천장 광을 축면하여 여러 가지 모양의 당초 구름 무늬가 표현되어 천상계와 벽면계를 구분하고 있다. 당초 운문의 기본 형식은 'S'자형의 파상 당초문 형식인데, 구름 줄기에 고사리손 모양의 작은 줄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

사신도 고분 등 후기 고분 벽화에서는 인동초화(忍冬草花) 형식으로 발전해 인동 당초문 형식의 구름무늬 특징을 이룬다.

△유운문(流雲紋): 고구려 고분 벽화중 진파리 1호분 현실 내 벽면에는 사신도가 그려졌는데, 그 사신의 배경에는 인동초(忍冬草)와 천화(天花) 등이 불결처럼 융융감 넘치는 유운 사이를 떠돌고 있는 모양이 묘사되었다.

△보운문(寶雲紋): 통일 신라의 불화에 도식적으로 나타나는 이 문양은 구름 머리 부분이 삼엽형(三葉形) 또는 여의(如錫)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꼬리 부분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점운(點雲): 점점으로 흩어져 있는 구름 모양으로 13세기 고려 시대의 상감 청자 등에서 운학(雲鶴), 운봉(雲鳳) 등에서 볼 수 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opia.com)

어서아름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어서아름은 '좋은 배 편 치의 어르남'이 없이 전이했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공로구 전지동 110-30 전화: (02)737-0616 팩스: (02)737-0606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은 가장 궁극적인 일이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이 일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소멸해 버린 자리(言語道斷 心行處滅)이며, 생각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허운(虛雲)화상 법어, 대성(大興)스님 옮김 86면 278쪽 / 25.500원 / 아서아름 펴냄

주머니속 대장경 301-권 (禪)



허운(虛雲)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스님의 일생은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귀중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깨달음의 법법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해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안일과 내세, 그리고 온갖 이집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통렬한 질타이기도 하다. 결국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 자신의 이러한 치열한 수행의 체험이 그대로 결정화된 오묘한 일승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윤근이의 말 중에서)

허운 화상(1864~1949)은 1864년 중국 복건 진주에서 출생하였다. 13세 때 처음 관음보살의 일대기 등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19세 때 출가, 고산 용현사의 교관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27세에는 모든 소임을 놓고 3년간 일념으로 관공과 염불을 하였으며 32세에는 천대산 용현암 용경 노학사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절은 시절 온갖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불법을 구했으며, 깊은 명고와 벽안에도 굴하지 않고 계율을 엄수하고 근교정관한 끝에, 풍문의 심인(心印)을 얻어 깨달아 단결하다시피 한 5등 가공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의사의 침과 공산 정관화에서도 승도를 수호하고 사찰 불당의 파괴를 막았으며 대소 수집소의 기량을 복원하는 한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율 주교 불문을 귀의시켰다. 그의 문하에서 출가하거나 수행한 제자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수록 내용

제1부 참선요지
제1장 참선의 선결 조건
1. 참선의 선결 조건
2. 성불(成佛)의 방편
3. 화두 참선법
4. 공부의 어려움과 쉬움

제2장 선방 법문
1. 이끄는 말
2. 공부의 입문 방법
3. 공부의 두 가지 어려움과 쉬움
4. 결론

제3장 참선경어
제4장 제석보다시중 (除夕普茶示衆)
제5장 수행과 불수행
제2부 선실법문

부록
1. 허운 화상 약전(略傳)
2. 어휘 해설
3. 인명 해설